

지역 소식 통

고창군.지정기부금6000만원

고창군장학재단에 전달

고창사람기부제 지정기부로 추진한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가 조기 완료돼 지난 30일 고창군장학재단에 지정기부금 6000만원이 전달됐다.

지정기부금은 고창군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지역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은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와 비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소년들은 6월5~1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현지 문화체험, 교육기관 방문 및 교류활동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덕천면,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본격화

정읍시가 덕천면 일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본격화한다.

올해 1억4,000만원을 들여 배수물교 설치와 완효성 비료 공급 등을 지원, 깨끗한 하천과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초기 강우 시 논밭의 흙탕물과 오염물질 유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수물교' 설치를 지원하고, 양분 유실을 줄여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질소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완효성비료'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덕천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토양 유실 저감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비점오염 저감 거버넌스'와 연계한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시에서는 덕천면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여름철 축산재해 '철통 방어'

축산재해 예방 위한 신속 대응체계 본격 구축·운영

정읍시가 올여름 폭염, 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2025년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아 폭염이나 열대야 등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축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이나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즉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만약 축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포·휴대폰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농가에 대

한 사전 지도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축협, 생산자 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상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축산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시설과 전기 장치를 미리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산농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밭로 뛰는' 정읍천 현장 점검

미로분수·맨발걷기 체험길 등 주요시설 환경개선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직접 밭로 뛰며 정읍천 곳곳을 점검한 가운데, 미로분수와 맨발걷기 체험길 등 주요 시설의 환경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읍천 일대를 직접 걸으며 현장 중심의 '현장속으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잡초와 잔디가 밀집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철거한 제초와 정리작업을 주문하고, 법면 구간의 자갈과 돌 제거 작업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미로분수 인근의 꽃잔디는 생육 부진을 이유로 생육이 우수한 식물로 교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로분수·샘골다리 구간에도 꽃잔디를 밀도 높게 심어 경관 개선을 꾀하고, 미로분수 벤치 아래 식재된 꽃잔디는 주변으로 이식해 아자매트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또 "샘골다리와 연지교 사이의 씨름장 부지는 잔디를 심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맨발걷기 체험길의 경우 딱

딱한 모래와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어 맨발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탄화 작업과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둔치 화단의 시각적인 정돈감을 높이기 위해 화단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경관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하모교에서 정읍천교까지 법면 구간과 인공섬 내의 수목을 제거한 뒤, 그 공간에 금계국 식재를 추진해 생태적 경관을 한층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소동 인근 하천 준설 작업을 통해 경관 개선과 유수 흐름 향상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천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자연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동진면 오디 재배농가 찾아... 농심 위로·적기 영농 지원 총력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와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0일 동진면 증산리 오디 재배 현장을 방문,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적기 영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화영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오디 수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



들과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에서는 영농활동이 계속되는 6월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아산면 중북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선정

주민 산책로 조성·노후 담장 재시공 등... 주민이 참여하는 모범적 경관 사례 추진 기대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에 아산면 중북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중북마을 일원에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뒤편 옛 도로를 복원해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노후한 담장을 철거한 후 자연친화적 재료로 재시공한다. 마을 내 건물 벽면과 공동창고에 벽화를 그려 마을 전반의 마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중심 생활도로의 도막 포장과 함께 야광 보행 안전 유도장치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전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마을에는 '2025년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이팝나무가 있다. 이팝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의 경관을 특화하고, 안내판,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삶의 질을 높이고, 중북마을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협

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조성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심덕식 고창군수는 "이번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아산면 중북마을이 지역 내 모범적인 경관개선 사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돌·백일상·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충

정읍시가 소중한 아기의 첫 생일과 백일을 특별하게 기념하고자 하는 출산 가정을 위해 돌·백일상 대여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확충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장난감까지 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돌·백일상 물품 대여 서비스는 아기의 취향과 부모의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전통 상차림과 화사한 꽃장식 상차림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서비스는 정읍시장난감대여점(정읍시 문화길 12)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여 예약은 매월 1일, 시청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해당 월에 잔여분은



있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대여 물품은

매주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수령한 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반납하면 된다.

장난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하면 돌·백일상 대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385종 938점에 이르는 미취학 영유아용 장난감을 9박 10일간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비는 연간 2만원(시설의 경우 5만원)이지만,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은 이용료가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장난감대여점(063-535-061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